

전 세계 화교 기업인들의 경제 올림픽!

제8차세계화상대회

第 八 届 世 界 华 商 大 会

2005. 10. 9 ~ 12

서울, 코엑스



세계화상대회란

1. 세계화상대회 소개

- 세계 화상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하여 싱가포르 리관유 前 총리가 주창하여 시작, 세계 최대 규모의 화교 경제인 대회
 - 1991년부터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각국 중화총상회 주최로 개최
- 개최 초기 화상간 친교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주 목적으로 하던 데서 출발, 최근 개최국가의 화교자본 유치와 국가 홍보의 장으로 발전(개최국 국가원수 참석)

※ 한국은 범중화경제권 형성에 따라 중화권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2003년 1월 일본을 제치고 대회 유치에 성공

- 세계화상대회 소집인기구(싱가폴, 홍콩, 태국중화총상회)는 정부의 대회 유치의지,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한국내 화교사회 재건 등에 높은 관심을 표명

[세계화상대회 연혁]

- ▶ '91년 제1차 싱가포르 대회 : 30개국 750여명 참석 (주빈 : 리관유 싱가포르 총리)
- ▶ '93년 제2차 홍콩 대회 : 22개국 850여명 (주빈 : 리관유 싱가포르 총리)
- ▶ '95년 제3차 태국 대회 : 24개국 1,500여명 (주빈 : Banham Silapa-acha 태국 수상)
- ▶ '97년 제4차 캐나다 대회 : 30개국 1,400여명
(주빈 : Raymond Chan 아시아-태평양양주 위원장)
- ▶ '99년 제5차 호주 대회 : 20개국 800여명 (주빈 : 존 하워드 총리)
- ▶ '01년 제6차 중국 대회 : 77개국 4,700여명 (주빈 : 주룽지 총리)
- ▶ '03년 제7차 말레이시아 대회 : 21개국 3,500여명 (주빈 : 마하티르 수상)

세계화상대회란

2. 전차대회 주요 참가 인사

국가	협회/기업명	성명
중국	聯想(Lenshang)集團有限公司	柳傳志
중국	Nanchang Kerui Group Co., Ltd.	鄭躍文
홍콩	長江事業(集團)有限公司	李嘉城
홍콩	香港恒基兆業地產有限公司	李兆基
홍콩	郭氏集團	郭鶴年
홍콩	霍英東集團	霍英東
홍콩	大華銀行	黃祖耀
홍콩	Henry Fok Estate Ltd.	霍震寰
대만	President Enterprises Corporation	高 清 愿
대만	新光企業集團	吳東進
대만	臺灣 "遠東關係企業"	徐旭東
싱가폴	新加坡內閣資政	李光耀
싱가폴	新加坡豐隆集團 城市發展有限公司	郭令裕
싱가폴	United Overseas Bank Group	黃祖耀
태국	Thasco Chemical Co., Ltd.	鄭明如
태국	太國盤谷銀行	陳有漢
말레이시아	Lion Corporation Berhad	鍾延森
말레이시아	Genting Berhad	林梧桐
인도네시아	Maspion Group of Companies	林文光
인도네시아	Lippo Group	李文正



제8차세계화상대회

1. 대회 개요

명칭	제8차 세계화상대회
주제	화상과의 동반 성장, 지구촌의 평화번영
기간	2005년 10월9일(일) ~ 12일(수)
장소	서울, COEX
주최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KCCCI)
주관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 조직위원회
후원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자체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KOTRA, 한국관광공사 등
규모	세계 35개국 약 3,000여명

2. 대회 일정

일 시	9일 (일)	10일 (월)				11일 (화)	12일 (수)		
09:00-10:00	등록 골프 TOUR	등록				산업 문화 시찰			
10:00-11:00		개막식					명사강연		
11:00-12:00		오찬					오찬		
12:00-13:00									
13:00-14:00									
14:00-15:00		Concurrent Forums			투자 설명회 및 개별 상담회		아시아 벤처기업 컨퍼런스	화·한상 리딩 CEO 회의	화상기업 투자 설명회
15:00-16:00		IT	BT	문화					
16:00-17:00		휴식					휴식		
17:00-18:00									
18:00-19:00									
19:00-20:00	전야제	Gala Dinner				폐막식 및 환송연 (한류 페스티벌)			
20:00-21:00									
상설운영		비즈니스 미팅							
		전시회							
		동반자 관광 / 선택 관광							

제8차세계화상대회

2. 대회 일정

전 야 제

2005년 10월 9일 19:00~21:00 / 서울시장 주최

■ 공식행사

- Opening 영상
- 환영사/답사/축사

■ 만찬공연

- 윤희정 재즈 공연
- 양방언 밴드
- 난타



개 막 식

2005년 10월 10일 10:00 ~12:00

■ 영접

- 식전공연
- 국립무용단
- 국수호 디딤무용단

■ 공식행사

- Opening 영상
- 개회사
- VIP 기조연설

■ 식후 공연

- 오페라 명성황후
- 김덕수 사물놀이 & 이루마

Concurrent Forum 및 투자설명회/개별상담회

2005년 10월 10일 14:00 ~17:00

■ IT / BT /문화 포럼

- IT, BT, 문화 분야 최신 정보 및
산업동향 발표, 토론

■ 투자설명회 및 개별상담회

- 한국 투자환경 설명회,
- 지자체 프로젝트 설명회

Gala Dinner

2005년 10월 10일 19:00~21:00 / 산자부장관 주최

■ 공식행사

- 만찬사/축사

■ 만찬 “갈라 디너쇼”

- 코리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국립합창단/신영옥 협연
- 국립발레단 ‘해적’
- 다이위치양/박미혜 협연



제8차세계화상대회

2. 대회 일정

지자체 시찰 및 선택관광 프로그램

2005년 10월 11일

- 지자체 시찰
 - 서울시 외 8개 지자체 방문
 - 산업시찰 및 관광지 방문
- 선택관광 프로그램
 - Half-day 투어 : 시티투어/쇼핑투어
 - Full-day 투어 : DMZ방문/시티투어

명사강연

2005년 10월 12일 10:00~12:00

- 초청연사 3인의 강연 (연사 후보)
 - 1순위 : 리관유(전 싱가포르 총리), 주룽지(전 중국 총리), 남덕우(전 국무총리)
 - 2순위 : 둥첸화(전 홍콩행정장관), 이문정(인니 Lippo그룹 회장), 윤종용(삼성전자 부회장)

아시아 벤처기업 컨퍼런스

화·한상 리딩CEO 회의

화상기업 투자설명회

2005년 10월 12일 14:00~17:00, 개별장소에서 같은 시간대 진행

- 세계벤처기업의 사업전략 및 동향
- 벤처기업 성공사례

- 한국기업 및 화상기업 CEO의 공통주제에 대한 토론

- 중국 등 화교권 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

폐막식 및 환송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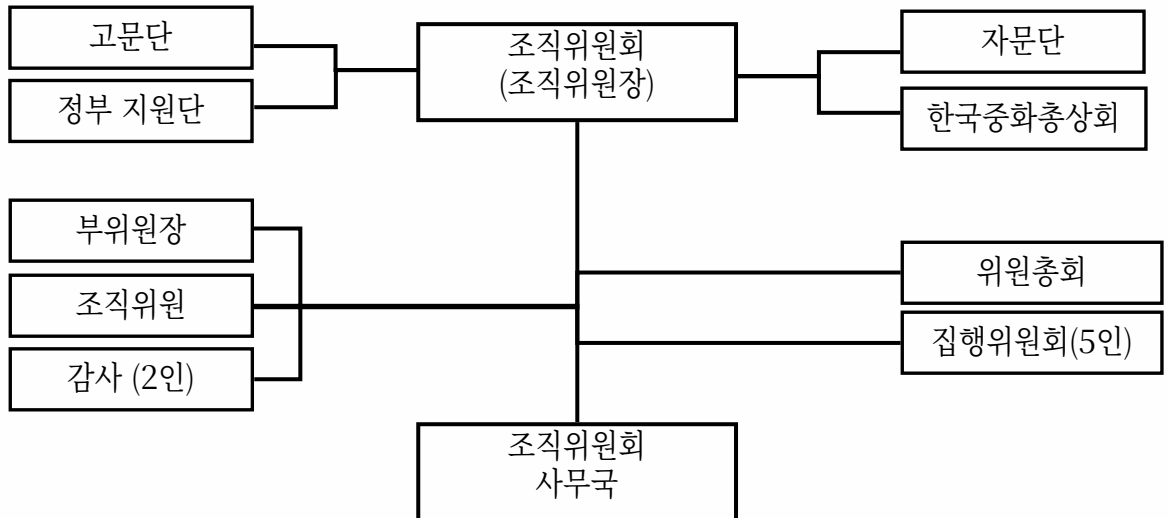
2005년 10월 12일 18:00~21:00 / 폐막식 : 국무총리
환송만찬 : 문광부장관 주최

- 1부 환송만찬
 - 폐회사
 - 환송사 (국무총리)
 - 차기 대회 소개
 - 대회기 이양
 - 차기 대회장 화답 연설
 - 일본 공연

- 2부 한류 페스티벌
 - 한류 패션쇼 (앙드레 김)
 - 한류 Joint Concert

제8차세계화상대회

3. 대회 조직도



□ 고문단

□ 조직위원회

※ 명예고문 : 국무총리

※ 위원장 : 한국중화총상회 회장 袁國棟

소속	직책
외교통상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중기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
KOTRA	사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부 임 원 장	한국중화총상회	상임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
	한국무역협회	전무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	중기협동조합중앙회	정책조사본부장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단 기획국장	한국중화총상회	상임부회장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한국중화총상회	상임부회장
	산업자원부	통상지원국장	한국중화총상회	상임부회장
	서울특별시	산업국장	한국중화총상회	부회장
	KOTRA	해외마케팅본부장	한국중화총상회	감사 외 이사 3인
	한국관광공사	해외마케팅본부장	제8차 세계화상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제8차세계화상대회

4. 주요 참석인사(예정)

중 국



■ 장웨이민
중국 Haier 회장



■ 완지페이
중국 무역촉진위원회 회장



■ 주징우
중국 BaoSteel 회장



■ 양위엔칭
중국 Lenovo CEO



■ 천상린
중국 상하이자동차 회장



■ 황몽푸
중화공상업연합회 회장

대 만



■ 왕용칭
대만 Fomosa그룹 회장



■ 쉬엔쉬룽
대만 용메이(永美)자동차 회장
대만 타이즈(太子)자동차 사장



■ 장핑자오
대만 環華증권 회장 겸
耀華전자 회장

■ Lawrence T. Liu 국제경제합작협회 비서장
■ 왕여우정 力霸그룹 회장(화상기업 303위)



제8차세계화상대회

4. 주요 참석인사(예정)

싱가폴



▪ **곽영유**

Hong Leong Singapore Finance Limited 부회장



▪ **차이티엔바오**

싱가폴중화총상회 회장
HB Media Holdings 회장

- **吳作樓** Raffles 그룹 회장(고축동 싱가포르 총리의 친동생)

홍콩



▪ **lan FOK Chun-wan**

홍콩중화총상회 회장
有榮有限公司 사장

- **崔 强** 홍콩鳳凰TV 부회장
- **리렌웨이** Lippo 유한공사 총경리(화상기업 438위)
- **조후모팡** 허치슨웬포아 부사장(화상기업 1위, 3위)
- **朱經武** 홍콩 과기대 총장
- **黃少輪** 홍콩대학교 부총장

태국



▪ **DR. BOONSONG SRIFUENGFUNG**

태국중화총상회 회장



▪ **Sutep supputranong**

방콕은행회장 고문

말레이시아



▪ **종옌션**

말레이시아 공상연합회 회장
국가경제발전위원회 주석



▪ **리션징**

말레이시아 카이예(凱業)그룹 회장

인도네시아



▪ **천따지앙**

인도네시아 중화총상회 회장
Raja Garuda Mas 회장



▪ **리원정**

아시아은행가협회 주석
인도네시아 Lippo그룹 회장



제8차세계화상대회

5. 기대효과

가. 경제적 기대효과

① 화상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범중화경제권의 전략적 진출 가능

- '01년 중국 WTO 가입 이후 범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범중화경제권의 경제통합과 기업간 비즈니스 창출에 있어서 화상자본이 촉매(catalyst) 역할을 수행
-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인 범중화경제권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경제 협력 채널 구축과 함께 화상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
 - 화상들이 갖고 있는 중국, 아세안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중국 진출사업 합작, ASEAN 사업기반 확충의 계기로 활용 계획

< 범중화경제권의 경제규모 >

구 분		인 구		GDP	
		규모(억명)	비중(%)	규모(천억불)	비중(%)
범중화경제권	중화경제권	13.3	21.2	1,862	5.1
	ASEAN	6.3	10.0	724	2.0
NAFTA		4.2	6.8	12,342	33.9
EU		4.5	7.2	10,966	30.2
일본		1.3	2.0	4,326	11.9

* 자료 : 세계은행, '03년 기준

* 중화경제권 : 중국, 홍콩, 대만, 중-홍콩 자유무역협정이 04.1월 발효

② 한국경제, 기업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제고 효과 극대화

- 화상기업의 한국 경제, 기업에 대한 신뢰와 이해도는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피상적인 수준
- 금번 화상대회를 통해 한국의 투자환경, 기술력, 정치민주화, 사회투명성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며,
 - 금번 대회에 후원기업은 전세계에서 모인 화교 비즈니스맨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각인

제8차세계화상대회

5. 기대효과

③ 화상자본의 국내유치 계기로 화상대회를 활용

- 화교자본은 총 2조달러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동남아에서 화상자본이 경제의 70% 이상을 실질적으로 장악

< 500대 화상기업의 국가별 분포 및 시장점유율 >

(’04년 6월말 기준)

구 분	대만	홍콩	싱가폴	말련	필리핀	태국	인니	계
국가별 분포	223개	137개	63개	46개	13개	11개	7개	500개
시장총액점유율	40.1%	38.02%	10.37%	6.27%	1.24%	2.66%	1.26%	100%

* 자료 : 아주주간(2004.10월)

- 화상들은 그 동안 부동산, 금융업, 전자, 석유화학, 물류업 등에 주로 투자해 왔으며 최근 들어 IT, 바이오 등 첨단분야 투자관심이 증가
- 금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 화상자본 국내투자를 유도

나.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① 한국사회의 다원성 회복을 위한 한국화교사회의 재도약을 계기 마련

- 국내거주 화교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한국화교 인구 급감(현재 2.3만명)
- 한국화교사회의 부흥을 통해 다양성이 보장된 열린 사회로의 기틀 마련

② “Chinatown 없는 배타적 한국”이라는 화교권의 부정적 이미지 불식

- 세계화상에 대한 한국의 친밀감을 부각, 한국(경제)의 개방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활용

③ 韓流의 역동성과 전통문화를 보여줌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

- 한류의 역동성과 다양성 홍보는 한국사회, 경제 등 전분야의 역동성을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



국내 언론 보도 현황

조선일보 2004년 11월 18일

“세계華商대회 많이 도와주세요”

귀왕위 싱가포르 중화총상회장 방문

“내년 10월 서울에서 열릴 제8차 세계화상(華商·華僑)대회에 관심있는 대화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 세계 화상들이 이 대회를 통해 한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투자를 함으로써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화교 비즈니스계의 총수로 불리는 귀왕위(郭永輝·50) 싱가포르 중화총상회 회장은 17일 코엑스 아셈홀에서 열린 서울 화상대회 준비 심사회의에 참석해 세계 화상들과 한국 기업인들 간의 협력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동남아 경제를 움직이는 화상들은 각각 중화총상회를 중심으로 조직돼 있으나, 싱가포르 중화총상회는 전 세계 화상들에 연방본부로서 총본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귀 회장은 전 세계 화상들이 대표로 인정받는다.

영국 함께 출범그룹(聯隆集團)을 이끌고 있는 귀 회장은 현재의 개인 재산이 50여억달러에 달해 전 세계 화상 재력가 중 12번째 규모로 꼽히고 있다. 총킹그룹은 싱가포르 최대의 부동산·금융·호텔·무역 종합 그룹으로서 전 세계에 100여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서울힐튼호텔과 서울신타이라, 명동 센트럴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귀 회장은 사업상으로도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번 화상대회에 한국의 요인들이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이명박(李鳴柏) 상임총리 회장을 꼭 초청할 것입니다.” 귀 회장은 “지난 1991년 싱가포르 화상대회에서 매월 밤을 새워 준비했는데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한국측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귀 회장은 한국 대회에 약 400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중국측 참석자가 너무 많이 들어 갈까?”와 “세계 화상대회가 중국화상대회로 되지 않도록 참석자를 균형을 맞춰 달라”고 부탁했다. 또 참석자 중 대부분 반으로 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소빙 등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조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내년에 대회가 시작되기 4개월 전쯤 다시 한국을 방문해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겠습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합니다.”

조선일보 기자: 조영진(wcecs@chosun.com)

조선일보 2003년 2월 7일자

마이너리티 리포트 華僑 그들의 꿈은..

“세계華僑돈 유치해 차이나타운 건설”

가을 연휴(10월 10일)를 맞아 돌아오는 10월 11일 제8차 세계화상(華商·華僑)대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세계 화상들이 이 대회를 통해 한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투자를 함으로써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이나타운 못세운 곳은 한국이 유망”
2005 서울華商대회의 계기로 꿈이틀것

전 세계 화상들이 이 대회를 통해 한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투자를 함으로써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 연휴(10월 10일)를 맞아 돌아오는 10월 11일 제8차 세계화상(華商·華僑)대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세계 화상들이 이 대회를 통해 한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투자를 함으로써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이나타운 못세운 곳은 한국이 유망”
2005 서울華商대회의 계기로 꿈이틀것

전 세계 화상들이 이 대회를 통해 한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투자를 함으로써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이나타운 못세운 곳은 한국이 유망”
2005 서울華商대회의 계기로 꿈이틀것



국내 언론 보도 현황

매일경제 2003년 2월 3일

중화권 경제핵심 ‘華商’ 韓商과 접목 계기될 듯

□ 세계화상대회 유치

우리 나라가 2006년 '세계화상(華商)대회'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한국과 화교 경제권의 본격적인 협력에 기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에 재이탈한 것은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세계화상(華商)대회와의 협력 가능성도 높아 이번 대회유치로 2조달러를 넘어서는 화교 경제권에 한국이 대등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평가다.

◇화교기업인 최대 모임=세계화상대회는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단순한 '전제'가 아니다.

중국 정부도 3월 간의 행사에 무려 1조4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을 정도로 공을 들였다. 주중지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화교 기업인의 박강한 파워를 실감케 했다.

행사기간에는 경제, 문화, 사회 등의 주요 이슈가 토론되는 한편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가 이뤄진다.

화상대회의 핵심 이라한 비즈니스 교류에 시작된다. 실제 전세계 화교기업의 1년 매출은 8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조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전세계 화교의 유동자금은 경제대국 일본의 유동자금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꼽히며 금융계에 서도 '국경을 모르는 화교자본'이 세계 3위의 경제세력'이라고 말할 정도다.

◇경제적 부가가치 크다=이 때문에 세계화상대회 유치는 단순한 문화권과의 협력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중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전세계 5500만명의 화교에 국내시장을 직접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화상대회 개최는 전세계 화상과 한국 기업간 교량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중심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한국의 구상에도 큰 영향을 끼

5000명 이상 참석

세계경제 큰 파워

칠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 화교들의 대중국 진출 거점으로 한국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중국투자자의 70%를 차지하는 화교 기업인들은 투자시 홍콩을 경유하는 것과 같이 송금, 열부자재 조달 등의 이유로 인접지역에 대중국 투자 교두보가 필요한 형편이다. 홍콩의 중국 반환으로 대중국 투자 화교들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새로운 교두보를 모색하고 있어 이번 대회 유치를 계기로 한국에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출

세계 화교의 경제력

- 2조달러 규모 유동자산 보유
- 중국 GDP의 2배
- 아시아 100대 기업 중 화교기업수 51개
- 동남아 인구의 4%, 자산 60%, 상권 70% 차지
- 대중국 투자 규모 216억달러
- 대중국 교역 규모 1288억달러

※ 자료=산업자원부, 대중국 투자·교역 규모는 2001년 기준

역대 세계화상대회 개최현황

구분(연도)	개최지	규모
1회(91)	싱가포르	70개 도시 800명 참가
2회(93)	홍콩	15개 국 1000명 참가
3회(95)	광둥(대륙)	23개 국 1500명 참가
4회(97)	베이징(대륙)	20개 국 1300명 참가
5회(99)	베이징(대륙)	20개 국 800명 참가
6회(2001)	난징(대륙)	77개 국 4800명 참가
7회(2003)	홍콩(대륙)	-
8회(2005)	서울	-

병한 '세계화상대회'와의 긴밀한 협력에 기대되고 있다.

지난 제1차 화상대회에 중국 화상 대표가 참석한 바 있으며 화상대회는 화상의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화상대회 국내 유치를 계기로 화상대회는 대등한 관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화상대회와 함께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성의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김진환기자 kimjh@mk.co.kr

국내 언론 보도 현황

[연합뉴스] 2004년 11월 17일

➤ 거물급 화상 대거 방한

■ 주요 내용

- 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화상대회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16일 내한한 실사단에는 싱가포르중화총상회의 궈링주(郭令裕) 회장, 홍콩중화총상회 이안폭 회장, 태국중화총상회 스레트바크디 캄폴 부회장 등 10여명의 유력 화상들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17일 오전 코엑스 아셈홀에서 한국중화총상회로부터 화상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지원단장인 조환익 산자부 차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2004년 11월 17일

➤ 거물급 華商 대거 방한... 내년 세계화상대회 점검차 실사단 활동

■ 주요 내용

- 내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8차 세계 화상(華商) 대회(WCEC)를 앞두고 거물급 화상들로 구성된 실사단이 대거 방한, 서울 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16일 내한한 실사단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한국 중화총상회로부터 화상대회 준비상황 설명을 듣고 정부지원단장인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실사단은 싱가포르 중화총상회 궈링주 회장, 홍콩 중화총상회 이안폭 회장, 태국 중화총상회 스레트바크디 캄폴 부회장 등 10여명으로 구성했으며, 한국에 화교자본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국내 언론 보도 현황

[한국경제] 2005년 1월 20일

➤ “서울대회 華資 20억弗 유치할 수 있다” - 원국동 중화총상회 회장

■ 주요 내용

- 오는 10월9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화상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국동(袁國棟) 한국중화총상회(中華總商會) 회장(47)은 "동남아에 집중돼있는 화교 자본이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으로 북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으며, 전세계 6천만 화교권(대만 포함) 경제인들의 "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화상대회는 전 세계 화교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중화총상회측은 이번 8차 세계 화상대회에 세계 80여개국에서 총 5천명 안팎의 화교 기업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참석자들이 대회기간인 3박4일동안 총 2백92억원을 지출,한국이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 2005년 3월 8일



➤ 100대화상기업 CEO 10월 서울서 모일 듯

■ 주요 내용

-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화상(華商)대회'에 화상기업 중 세계 1위인 홍콩 창장(長江) 홀딩스의 리카싱(李嘉誠) 회장과 귀빙상(郭炳湘) 신흥지(新鴻基)개발 회장 등 세계 100대 화상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이 추진된다고 8일 산업자원부가 밝혔다.
- 화상대회조직위원회는 이날 COEX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달 중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민관합동 화상대회 홍보 로드쇼를 개최, 세계화상대회연합회 및 각국의 중화총상회 회장들과 만나 100대 화상기업 CEO들의 대회참가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직위원회는 또 현재 한국중화총상회 내에 설치, 운영 중인 대회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화해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OTRA 등 주요 경제단체가 전문인력 파견 등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대회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국내 언론 보도 현황

[연합뉴스]=심층인터뷰= 華商대회 사령탑 원국동 위원장 2005년 5월 8일

➤ 거대 화교자본 對韓 직접투자 물꼬 트일 것“ 국내 화교기업·인재 육성 자원화 전략 필요

■ 주요 내용

- 본업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한국중화총상회 회장까지 맡고 있는 원국동(袁國棟.47) 조직위원장은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 화교 '거상(巨商)'들이 어느 대회 때보다 많이 참석해 한국 기업인들과 직접 대면하게 된다면 세계 거부 대열에 드는 화상 2세들의 데뷔무대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국동 위원장은 또 이번 대회를 계기로 그 동안 극히 미미했던 화교자본 직접투자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낙관하고,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와 화교사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해외 화교자본 유치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원국동 위원장은 이와 함께 극히 영세한 한국 화교 기업을 벤처기업 키우고 화교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중국을 비롯한 화교 상권지역 진출의 자원으로 삼을 경우 “수지 맞는 장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눈코 뜰 새 없는 원국동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센터 17층에 있는 조직위원회실에서 만나 화상대회의 전망과 한국 화교사회의 고민을 들어보았다





해외 언론 보도 현황

인도네시아 상보(상업일보) 2005년 4월 27일 (3면)

▶ 제8회 세계화상대회 한국에서 개최

■ 주요 내용

- 한국중화 총상회 회장겸 제8차세계화상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원국동과 현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통상 협력국장 이태용등 일행 9명으로 구성된 서울 세계화상대회 선전단은 4월 27일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서울 세계화상대회에 관한 준비 상황 및 일정 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 자동차 등의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을 주도하는 신세대 CEO를 초청하여 좌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이외에 대표적인 기업의 CEO도 초청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전세계 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비즈니스 영역의 무한한 전망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무역과 투자 확대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

▶ 서울세계화상대회 대표단 자카르타 도착

■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총상회 총주석 진대강, 한국중화총상회 회장겸 제8차세계화상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원국동, 제8회 서울 세계화상대회 상임부회장 왕수덕, 사무국장 구성진
- 제8회 서울 세계화상대회 위원장 원국동 (앞줄, 오른쪽 세번째), 인도네시아 총상회 총 주석 진대강 (앞줄, 오른쪽 네번째),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이태용 (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해외 언론 보도 현황

국제일보 2005년 4월 27일 (B3)

➤ 원국동 회장 화상들의 열렬한 참여를 호소

■ 주요 내용

-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이태용(앞줄 왼쪽, 4번째), 한국중화 총상회 회장겸 제8차세계화상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원국동(오른쪽 3번째)와 VIP들의 단체사진 일부
- 인도네시아 총상회 총주석 진대강이 원국동위원장에게 기념품 준다. 왼쪽부터 장항상, 진위지, 유승혁, 유계지, 원국동 위원장, 진대강, 이태용 국장, 양극림, 전지관, 임영희
- 기사내용은 인도네시아 상보 2005년 4월 27일 (3면) 참조

